

설교자: Andrew de Vries

1 아닥사스다왕 이십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5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 그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 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거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어떤 것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비롯된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큰 성공을 통해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이뤄낸 성공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역경의 끝을 볼 수 있었으며 모든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1,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손길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것 없이 그저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뤄지나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계획했고 기도했으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에 사용받길 원했고 그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삶의 재건에 열정이 있고 비숍데일 교회 속에서 삶을 세워나가고 싶다면 여러분도 역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말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교회의 영적재건을 위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2, 하나님의 섭리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역경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할 수 없도록 모든 방면에서 막았습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이 일(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할 수 있길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용인이 이런 것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그 당시 주인을 섬기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왕의 신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재건을 간청하는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면 아닥사스다왕은 이전에 예루살렘 재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법을 개정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모든 자금지원까지 요청했습니다. 왕과의 대화에 마지막에서 우리는 왕이 예루살렘 재건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문제가 너무 커서 아니면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미 늦었다며 쉽게 포기해선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에 선명히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왕과의 대화가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화의 결과가 좋게 끝날 것을 대화의 마지막 까지 알지 못했습니

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 대화로 인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 2:2). 일이 잘못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술 관원은 고대 사회에서 종종 일이 잘못되거나 왕의 심기가 불편할 때 제외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를 시작할 때 감수해야만 했던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이 잘 될지 그릇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놓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축복해주실지 아니면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그 분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위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의 선한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심판의 손길이 아닌 축복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의 선한 손이 우리가 어떠한 하루를 보내든지 우리 매일의 삶 위에 머물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교회의 재건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길 기도합니다.